

2025학년도 전북지역 수능 응시자 1만7041명

전년대비 236명 ↑... 재학생·졸업생·검정고시 출신 모두 늘어 화법·작문 선택 비율 올해 2.8% ↑... 언어·매체 응시 비율 3% ↓

2025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에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북지역 지원자는 1만7,041명으로 전년대비 236명(1.4%) 늘었다.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은 73.9%,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은 각각 22.9%, 3.2%를 차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 8,611명(50.53%), 여자 8,430명(49.46%)으로 집계됐다.

영역별 선택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국어 영역의 경우 화법과작문 1만 2,175명(71.5%), 언어와매체 4,771명(28.0%)이 응시한다. 화법과작문 선택 비율은 올해 2.8% 증가했지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응시자 비율은 3% 줄어 과목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수학 영역은 미적분 8,462명(49.7%), 확률과통계 7,506명(44.1%), 기하 445명(2.6%)으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고, 증가를 나타내던 미적분 선택 비율이 0.8% 줄었다. 감소하던 확률과통계 선택자 비율은 0.4% 늘었다.

영어 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1만 6,780명(98.5%)이 선택했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 영역 7,753명(45.5%), 과학탐구 영역 6,941명(40.7%), 사회·과학탐구 영역 1,861명(10.9%), 직업탐구 영역 94명 (0.6%)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비 각각 사탐 3.1% 증가, 과탐 8.6% 감소, 사·과 5.4% 증가했다. 사탐영역이 증가하는 모양으로 지난해와 정반대의 지원 성향을 보였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2,557명(15.0%)이 선택해 지난해보다 1.4% 늘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전국 수능 지원자는 50만4,588명으로 지난해보다 3,442명 감소했고, 전국 대비 전북지역 수험생 비율은 3.3%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정은 "화법과작문·확률과통계·사회탐구 영역 강세가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났다"면서 "기존의 표준점수 유희리를 고려한 과목 출림 현상과는 대비되는 추세로 의대 정원 증원, 자율전공선택제 도입, 선택과목 지정 폐지 대학 증가와 같은 대입 전형의 변수가 상위권 지원자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지원자의 과목 선택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N수생의 실력과 과목 간의 지원자 이탈 및 유입에 따른 등급 컷 예측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만큼 불확실성에 대비해 남은 기간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9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정함에 따라 열린 상호 존중의 날 행사에서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부서 대표 교직원 등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꽃과 함께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를 나눴다.

9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 지정

전북자치도교육청, '조직문화 규정' 훈령 따라 행사 열고 결의문 낭독·메시지 전달·나눔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3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령에 따라 '상호 존중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1=1)로, 2학기 첫 번째 11일 운영한다.

이날 행사는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 실천 결의문 낭독, 상호 존중 메시지 전달과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부서 대표 교직원 등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꽃과 함께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를 나눴다.

한편, 도내 14개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에서도 이날 기관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서거석 교육감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상호 존중의 날을 통해 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고 학생 진로 지원' 전주대, 남원고와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0일 대학 본관에서 남원고등학교(교장 신희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희철 교장과 하덕근 교감, 박진배 총장, 윤찬영 대외부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남원고 학생들의 교육 활동 및 진로 탐색 지원 △미래 신산업 관련 전문가 특강 등 교육 지원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상호 협력 등이다.

이를 통해 전주대는 남원고 학생들의 창작 활동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또 학생들의 창의·융합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미래 신산업을 주도하는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와 남원고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현장실습지원센터 남원고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지난 10일 남원고등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병훈 총장, 김현식 미래모빌리티학과 학과장, 권숙연 컴퓨터정보과 학과장, 신희철 교장, 하덕근 교감, 전재운 교무부장, 성현준 MOU 담당 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미래 모빌리티 관련 과목 개설 및 운영 △미래모빌리티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병훈 총장은 "남원고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미래신산업 교육 모델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희철 교장은 "전주비전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모빌리티와 드론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러한 학생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유치원 학급편성 사립 허용기준 삭제하라"

도내 교원단체 등 '한목소리'... 전북교육청 "5세반 급당 인원수 조정·검토 가능"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북지역 교원단체 및 노조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학급편성 사립 허용기준을 즉시 삭제하라'고 외쳤다.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 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전북지부 등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10월 행정과 문서를 통해 2024학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을 도내 공사립유치원으로 시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학급당 정원은 3세반 14명, 4세반 16명, 5세반 18명인데 사립유치원에는 특별히 '허용 기준'이라는 것을 뒤 3세반의 경우 18명까지, 4세반은 22명까지, 5세반은 27명까지 허용해 편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립에 비해 사립은 학급당 유아수가 최대 9명 더 많은 것은 초등 1학년 교실의 학생 수 20명보다 더 많은 수이며, 이러한 과밀학급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북지역 교원단체 및 노조가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학급편성 사립 허용기준을 즉시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아 개개인의 요구와 흥미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유아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실현이 어렵고, 구조적으로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유아수 급감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경영 지원금일뿐, 이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타 시도 학급당 기준 수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유보통합실 정부와 유아수 권고 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시기가 미뤄져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5세반의 경우 급당 인원수를 조정·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객관성·공정성·신뢰성 높인다

전북자치도교육청, 14개 시군 지역교권보호위원장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전주 평화의전당에서 14개 시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위원장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교육활동 보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익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

위원회 김종권 위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전북지역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심의 및 종결 절차 과정을 살펴봤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28일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라 14개 교육지원

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별로 총 48개의 소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있다.

유재복 교권보호관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 나아가 학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위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5학년도 공립 유·초·특수교사 177명 선발

전북자치도교육청, 시행계획 공고... 30일부터 원서접수

2025학년도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이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be.go.kr)에 공고됐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선발인원은 공립 유치원교사 54명

(장애 4명), 초등교사 111명(장애 9명), 특수유치원교사 2명, 특수초등교사 10명(장애 1명) 등 총 177명(장애 14명)이다.

지난해 대비 공립 유치원교사는 36명, 초등교사는 70명이 증가했고, 특수

유치원교사와 특수초등교사는 각각 3명씩 감소했다.

사립은 특수유치원교사 1명, 특수초등교사 2명 등 총 3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제1차 시험은 11월 9일 치러지며,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11일 이뤄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내년 전북 교육력 높인다

전북자치도교육청, 2025년 부서별 경영계획 발표회 올해 보은점 분석·내년 부서별 추진 전략 발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일 5층 회의실에서 교육감 주재 2025년 부서별 경영계획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의 교육력(학력신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성과 및 보은점을 분석하고, 2025년 부서 사명에 따른 달성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발굴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목적을 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래교육과는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양성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인프라 조성 △AI디지털 활용 교육 활성화 △학교 안팎으로 모두가 따뜻한 보육과 교육복지를 목표로 내년도 핵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중등교육과는 △나를 찾아가는 교육과정, 학생맞춤형 교육을 위한 운영 지원 △탄탄한 익힘과 실력을 기우는 모든 학생 학력신장 실현 △격차와

공백없는 실력과 적성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으로 학력 신장에 집중할 예정이다.

끝으로 창의인재교육과는 △지역 특화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과학·수학·발명·영재 교육을 통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세계시민으로 나아가는 실용외국어 인재 양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뒀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경영계획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 거석 교육감은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은 기관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령인구 유출 없는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 '머리 맞대다'

전북대·경원원 공동주최 포럼...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 강조

전북지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학과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체가 머리를 맞대었다.



지난 10일 열린 '전북 반도체산업 발전 포럼'

이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전북대 반도체소부장형신용융대학사업단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도내 2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부 임장이 개회사를 통해 도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대 정형근 명예교수의 강연과 가천대 반도체교육원장 김용석

석좌교수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들은 도내 반도체 산업의 동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략을 논의했다.

이종열 단장은 "이번 포럼이 도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식별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오는 11월 예정된 2차 포럼을 통해 지·산·학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거버넌스 활성화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